사설

해 묵은 한약분쟁

해묵은 한약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한약조제권을 두고 한의사와 약사간에 벌이는 이번 싸움은 이미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시각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기득권을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울뿐이다.

양 단체가 총회를 통해 밝혔던 사업계획의 대부분은 분쟁에 묻혀 뒷전이다. 국민보건의 일익을 담당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들은 명백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이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지만 업권때문에 번번히 정책을 반대하고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며 사회 안정을 흐리는 이들의 이전투구가 무엇보다 옳지 못한 행위다. 이들은 단지 한약조제권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중요한 한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금 한약시장은 심각한 불황을 맞고 있다. 계절적으로 한약의 성수기인 봄철을 기준했을 때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가량 매출 하락세를 보였다. 그렇다고 생산량이 준것은 아니다. 생산량은 물론 수입도 크게 늘었다. 단편적인 생각으로도 재고량이 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생산자의 재고는 물론 도·소매업체의 재고는 이들의 생계마져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약분쟁의 끝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의 분쟁이 한약시장의 경기 하락세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하지만 분쟁의 여파는, 지구 반대편 나비의 날개짓이 다른 반대편에 폭풍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카오스이론'처럼 한약시장을 침체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약사와 약사는 이제 목전에 있는 '나의 이익'보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흙을 만지고 사는 한약재 생산농민을 위해서라도 분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나아가 국민보건을 위해서 의료인이 지향해야 하는 길을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행사

이 모 저 모

이름 모를 약초에서 고사리등 산나물까지

2백50여명 참가

○…경기도 양평군 소재 중미산. 해발 8백35m로 가평과 양평의 경계에 위치한 중미산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이면서도 아직 사람들의 발길이 그리 많지 않은 곳.

이름모를 약초에서 부터 곰취, 잔대싹, 취나물, 쑥, 고사리등 산나물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군락을 이루며 일행을 반겼다.

한편, 중미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생약협회는 둥굴레차 쌍화차와 함께 당귀, 솔잎, 마(산약)를 넣어 만든 약떡을 준비, 참가자들에게 간식으로 제공. 색색으로 빛은 약떡과 씁쌀한 쌍화차, 둥굴레의 구수한 맛이 모처럼의 여행길을 더욱 향기롭게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평소 약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소비자들을 비롯 직접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약초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등 약2백50여명이 참석해 이번 행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가족나들이를 겸해서 나온 팀들도 몇몇 눈에 띄었는데 정성스레 준비한 오색김밥과 직접 채취한 곰취, 잔대싹, 취나물로 쌈을 싸먹기도 하고 즉석에서 채취한 쑥으로 쑥국을 끓여먹기도 하면서 모처럼 야외에서의 풍성한 오찬을 즐겼다. 한쪽에서 가재를 잡으며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투명.

우리생약살기일환

○…이종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입개방화로 인해 우리 생약재의 수효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생약살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이같은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

한편 이날 채취행사에는 12명의 군 사무소장이 참여, 중앙회 행사에 적극 동참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날 참여한 군사무소장은 다음과 같다. △김원복 사무소장(강원도 삼척군) △조광호 사무소장(강원도 정선군) △김성배 지부장(경기도) △이인기 사무소장(경기도 포천군) △김인육 공판장장(경기도 연천군) △한만엽 공판장장(경기도 수원시) △이웅황 사무소장(경기도 안성군) △유창권 공판장장(경기도 의정부시) △이한승 사무소장(충북 제천군) △장지홍 이사(충북 단양군) △신상섭 공판장장(충북 단양군) △황인구 부회장(강원도 원주시) 이상 무순.

현장 강의

○…이날 행사에 참가한 소비자들은 안덕균 교수님으로 부터 자생약초의 종류와 이름, 약효별 특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먹으면 안되는 독풀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고 표본을 관찰한 후 직접 현장실습에 들어갔다.

안 교수님이 약초표본을 들고 이름과 특성 효능에 대해 설명할 때는 열심히 받아 적기도 하고 식물을 카메라에 담는가 하면 궁금한 것은 질문도 하면서 야외수업은 시종 진지한 분위기.

이것저것을 질문하던 한 할아버지가 『교수님 참 많이 아시네요』해 한바탕 폭소를 자아내기도.

조별로 산행

○…12명에서 13명꼴로 한 조를 이루어서 조별로 조장의 통솔 아래 산에 올랐다. 중미산의 아래자락에서 부터 위쪽으로 더듬어 올라가는 동안 산이 풀을 열어 보여준 여러가지 이름모를 꽃과 식물들을 속에서 더덕, 둥굴레(황정), 위령선, 현삼, 천남성, 엉겅퀴, 전호, 냉초, 삽주뿌리, 딱총나무, 산작약, 하늘말나리, 하고초(꿀풀), 쥐오줌풀 등 귀에 익숙한 것에서 부터 한번도 들어나지 못한 이름의 약초까지 그 생김새를 관찰하며 자연이 베푼 하루동안의 풍요에 사람들은 마냥 흡족해 하는 표정.

캐보고 뿌리가 아직 튼실하지 않은 것들은 모종삽으로 다시금 조심스럽게 심어주는 자상한 손길도.

○…나물이며 약초를 이것저것 열심히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초에는 욕심이 없고 맑은 자연속에서 하루의 여유를 즐기는 것 만으로도 그저 풍족한 사람들. 그들은 그들대로 일찌감치 터를 잡고 무리지어 앉아 도시를 벗어난 모처럼만의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야기 꽃을 피우며 한나절의 휴가를 만끽.

슈퍼씨비닐 - 종자 절감에 감탄하고 인력절감에 놀란다

■ 슈퍼씨비닐, 이런점이 좋습니다.

1. 파종, 복토, 비닐멀칭작업을 한번에 할수가 있어서 시간과 인력이 대폭 절감됩니다.
2. 우수한 씨앗만을 엄선하여 필요간격에 따라 정확히 점파할 수 있으므로 발아율이 뛰어날 뿐더러 귀중한 씨앗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비닐 멀칭으로 인해 발아와 성장이 빠르므로 단기 수확이 가능하며 품질도 뛰어납니다.
4. 제초인력이 대폭 절감되고 제초작업이 용이합니다.
5. 파종간격이 일정하여 기계화가 용이합니다.

슈퍼씨비닐 적용작물 종자 소요량 (250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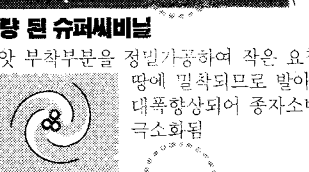
작 목	슈퍼씨비닐 종자소요량	작 목	슈퍼씨비닐 종자소요량
황 기	5 홉	더 덕	10 홉
황 금	4 홉	우 슬	15 홉
도라지	15 홉	현 삼	3 홉

기타 당귀, 백지, 방풍, 강활, 하수오등 모든 미세약초종자는 슈퍼씨비닐 가공이 가능하며 그 소요량이 대폭 절감됩니다. 자세한 재배방법은 문의바랍니다.

■ 기존씨비닐의 단점을 완전 보완해 발아율이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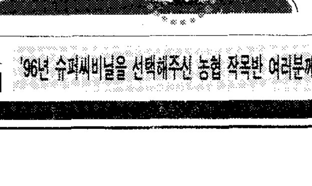
기존 씨비닐

지표면 씨앗부위가 고르지않으면 발아가 고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필요이상의 씨앗을 붙이게되 씨앗 소비는 물론 솎음 작업도 더딤



개량 된 슈퍼씨비닐

씨앗 부착부분을 정밀가공하여 작은 요철에서도 땅에 밀착되므로 발아율이 대폭향상되어 종자소비량이 극소화됨



씨닐農産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72-4 풍전빌딩302호 TEL: 449-8280~1

'96년 슈퍼씨비닐을 선택해주신 농협 작목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